

**종합·해설**

# 李대통령 '6·2 민심' 수용 얼마나

## ■오늘 TV·라디오 정례연설

이명박(MB)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12일간의 '장고' 끝에 14일 오전 TV와 라디오로 생방송 되는 정례연설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이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됐던 정례 라디오연설을 대체하게 된다.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라디오연설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이후 또 일주일일이 연기된 바 있었다.

이 대통령이 정례연설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을 제시키로 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쇄신파까지 당·정·청 전면쇄신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 고려했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운찬 총리의 이른바 '인적 개편 거사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더는 침묵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6·2 지방선거

## 교육·토착비리 척결...당정청 전면쇄신 입장 밝힐 듯

### "세종시 수정·4대강 사업은 계속 추진" 선언 가능성

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경 개혁과 교육, 토착비리 척결을 통해 정부 스스로 국정 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국정 기조를 더욱 강화,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고 소외계층을 더욱 따뜻하게 챙기겠다는 의중도 포함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정·청 인적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인적 개편의 규모는 언급할 수 있지만 인적 개편의 시기는 특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현재 여권 인적 개편의 범위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모두 중폭 이상

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편 시기는 2단계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각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와 개편한 뒤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10~14일 중 개최될 예정인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후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먼저 한 뒤 7·28 재보선 이후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국정과제의 핵심인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은 이미 '국가 백년대계'로 규정된 만큼 당장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해 결정할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4대강 사업은 이미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 결정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각각 들면서 '계속 추진'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계속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 대쇄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생방송 연설을 통해 청와대·내각의 인적쇄신 입장 등을 표명키로 한 데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민심수습을 위해 대통령이 입장표명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단지 '회전문 인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면 초선 의원들은 계파 갈등 해소, 당·정 소통, 당 차원의 친(親)서민정책 개발 노력 등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시할 쇄신안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참여당,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묘소 참배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국민참여당 관계자들이 무릎 꿇고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충환 최고위원, 유시민 전 장관, 이재정 대표, 이병원 광주 서구의원 당선자, 천호선 최고위원. /연합뉴스

## '486 vs 575' 민주 당권경쟁 돌입

### 주류 "丁체제 연장" 8월 전대 최고위원 대거 도전

### 비주류 '反丁 단일화' 추진 당권교체 세 걸집 속도

오는 8월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486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575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비주류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486세대'(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와 '575세대'(50대, 70년대 학번, 50년대생)의 정면충돌은 당내 세력 변화 차이를 넘어 민주당의 세대 교체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 대표 체제 유지가 차기 총선 공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575 인사들이 주축인 비주류측도 486 그룹의 약진을 경계하며 당권교체를 위한 세 걸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오

는 당권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정 대표 체제 연장을 시도하면서 자신들도 직접 지도부에 참여, 변화의 바람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조만간 대규모 회동을 갖고 세를 과시하는 한편 내부 주자군 조율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측 핵심 관계자는 "486 그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진입,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정 대표 체제 유지가 차기 총선 공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575 인사들이 주축인 비주류측도 486 그룹의 약진을 경계하며 당권교체를 위한 세 걸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오

는 16일 원외인사까지 아우르는 '쇄신연대'(가칭) 준비위를 발족한 뒤 워크숍을 열어 정세균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당 혁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 대표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 순수집단지도체제 및 전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주류 출신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 주류 측에서 지도체제 전환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보이콧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박주선·김효석 의원 등 당권 도전에 나서자는 중도 성향 중진 의원들과의 연대에 나서 정세균 대표 등 주류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지역별 시도당위원장 선출도 계파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당권 경쟁의 전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해외 순방' 박광태 광주시장 급거 귀국 왜?

정윤성국제음악제 참관·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차 10박11일 일정으로 지난 8일 중국·유럽순방에 나선 박광태 광주시장이 유럽 일정을 취소하고 12일 중도 귀국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초 박 시장은 중국 상하이·베이징·정저우 등에서 정윤성국제음악제 참관, 광주비엔날레 베이징기자설명회 주재, 2010 세계관광도시 시장 포럼 개막식 참석 등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 후 13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스위스 바젤·취리히를 방문해 18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럽의 경우 기차로 이동하도록 있는데다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 있어 광주에서 퇴임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빠듯한 유럽 일정 부담...퇴임 준비설 분분

### 민선 5기 인수위 활동에 '위기의식' 관측도

그러나 임기 막까지 장기 해외출장은 지나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던 박 시장이 출발 전 조율이 충분치 못한 일정을 문제 삼아 갑자기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운태 시장 당선자와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연일 민선 3·4기 핵심사업에 대해 수정보완 또는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통합 및 광주시 조직개편 추진 등에 나서는 등 과거 성과는 외면한 채 오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박 시장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또 인수인계 과정에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광주시 직원들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방문보다는 퇴임 기자회견 등 임기 막까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듯하다"며 "이달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데 9월에 있을 비엔날레 홍보에 힘쓰기 보다는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던 편

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유럽 방문 취소는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외일정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스위스 바젤시장 등 중요인사와의 면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광주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약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순방일정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는 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맨드니 디자이너 오찬·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 설명회·비엔날레 추진단과 만찬 등을 한 뒤 15일 스위스 바젤로 이동해 2박3일 동안 비트라미술관 오찬·바젤시장 및 바젤아트페어총감독 면담·바젤아트페어 개막식 참석·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 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돼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 잇단 워크숍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1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6·2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김동철 시장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강운태 광주시장 당

선자, 유태명·송광운·최영호·민형배 구청장 당선자,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당선자들은 ▲지역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바람직한 지방의원의

자세 등의 특강을 경청한 뒤 향후의 정활동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좋은 지방정부 만들기,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4-15일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호텔에서 6·2지방선거 영·호남 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권일기자 cki@

## 공무원

**2010년 전남 교육행정직 122명 모집에 본 학원 출신 88명 합격 (합격률 72%)**  
10년 연속 광주·전남 최대 합격자 배출  
광주·전남 합격자의 약 70% 참여

**합격 설명회**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

**특별이벤트1**  
(수강생 5명당 1명)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특별이벤트2**  
(수강생 10명당 1명)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개강 7월 1일**

## PEET/ MEET/ DEET

**약대대학    의대대학    치대대학**

전국 최대 학사학위 전문 강사진이 펼치는 체계적 학원 수강생의

**적중예상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자료

**기초이론만**

강의자료

**토익/토플**

강의자료

**개강 7월 5일(매주)**

**서울고시학원**

1514-4580  
sgsoul.co.kr

**서울정발전문학원**

www.seouljeongbal.com | 1514-7201

**MDPass 의학원**

1514-4580  
mdpasa.co.kr